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5년 6월 27일 지방직 9급

2015. 06 . 2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 나머지 셋과 의미가 다른 사자성어는?

- ① 갑남을녀(甲男乙女) ② 초동급부(樵童汲婦)
③ 장삼이사(張三李四) ④ 부창부수(夫唱婦隨)

답 ④

④의 '부창부수(夫唱婦隨)'는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따른다는 뜻으로, 가정에서의 부부 화합의 도리를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①,②,③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필부필부(匹夫匹婦), 우부우부(愚夫愚婦)' 등이 있다.

- ① **갑남을녀(甲男乙女)** : 甲 갑옷 갑/男 사내 남/乙 새 을/女 계집 녀) '갑(甲)이라는 남자와 을(乙)이라는 여자'라는 뜻으로, 신분이나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한 그저 평범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 보통 평범한 사람들.
② **초동급부(樵童汲婦)** : 樵 나무할 초/童 아이 동/汲 길을 급/婦 며느리 부) 땔나무를 하는 아이와 물을 길는 여자라는 뜻으로, 보통 사람을 뜻함.
③ **장삼이사(張三李四)** : 張 베풀 장/三 석 삼/李 오얏 이/四 녀 사) 장씨의 셋째 아들과 이씨의 넷째 아들이란 뜻으로, ㉠ 성명이나 신분이 뚜렷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 ㉡ 사람에게 성리가 있음은 아나, 그 모양이나 이름을 지어 말할 수 없음의 비유.
④ **부창부수(夫唱婦隨)** : 夫 지아비 부/唱 부를 창/婦 며느리 부/隨 따를 수)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따른다는 뜻으로, 가정에서의 부부 화합의 도리를 이르는 말.

[기출] 다음 한자 성어 중 의미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2015년 서울시 9급]

- ① 道聽塗說 ② 心心相印
③ 拈華微笑 ④ 以心傳心

답 ① [2015년 서울시 9급]

①의 '도청도설(道聽塗說)'은 길거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곧 그 길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는 뜻으로,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뜬소문을 뜻한다. ②,③,④는 모두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으로 통한다는 뜻이다.

- ① **도청도설(道聽塗說)** : 道 길 도/聽 들을 청/塗 진흙 도/說 말 씀 설) 길거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곧 그 길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는 뜻으로, ㉠ 거리에서 들은 것을 남에게 아는 체하며 말함. ㉡ 깊이 생각 않고 예사로 듣고 말함. ㉢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뜬소문.
② **심심상인(心心相印)** : 心 마음 심/心 마음 심/相 서로 상/印 도장 인)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뜻으로, 묵묵한 가운데 서로 마음이 통함. [유] 교외별전(敎外別傳), 불립문자(不立文字), 영화미소(拈華微笑), 영화시중(拈華示衆), 이심전심(以心傳心)
③ **영화미소(拈華微笑)** : 拈 집을 염/華 빛날 화/微 작을 미/笑 웃음 소) '꽃을 집어 들고 웃음을 띠다'란 뜻으로, 말로 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을 이르는 말. 불교에서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뜻으로 쓰이는 말.
[유] 교외별전(敎外別傳), 불립문자(不立文字), 심심상인(心心相印), 영화시중(拈華示衆), 이심전심(以心傳心)
④ **이심전심(以心傳心)** : 以 써 이/心 마음 심/傳 전할 전/心 마음 심) 석가(釋迦)와 가섭이 마음으로 마음에 전한다는 뜻으로, ㉠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뜻은 마음으로 깨달는 수밖에 없다는 말. ㉡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의사(意思)가 전달됨.
[유] 교외별전(敎外別傳), 불립문자(不立文字), 심심상인(心心相印), 영화미소(拈華微笑), 영화시중(拈華示衆)



2. 다음 내용에 부합하는 사자성어는?

다양한 의견을 지닌 사회의 주체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도 개개인의 의견을 굽혀 야합하지 않는 열린 토론의 장을 만들자.

- ① 동기상구(同氣相求) ② 화이부동(和而不同)
③ 동성이숙(同聲異俗) ④ 오월동주(吳越同舟)

답 ②

제시문의 내용은 다양한 의견을 지닌 주체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도 개개인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남과 사이좋게 지내되 의(義)를 굽혀 좇지는 아니한다'는 뜻의 화이부동(和而不同)이 적절하다.

- ① **동기상구(同氣相求)** : 同 한가지 동/氣 기운 기/相 서로 상/求 구할 구) 기풍(氣風)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서로 동류를 찾아 모임.
[유] 동병상련(同病相憐), 동성상응(同聲相應)
② **화이부동(和而不同)** : 和 화할 화/而 말 이을 이/不 아닐 부/同 한가지 동) 남과 사이좋게 지내되 의(義)를 굽혀 좇지는 아니한다는 뜻으로, 곧,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원칙을 잃지 않음.
③ **동성이숙(同聲異俗)** : 同 한가지 동/聲 소리 성/異 다를 이/俗 풍속 속) 사람이 태어날 때는 다 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으나, 자라면서 언어·풍속·습관이 달라진다는 뜻으로, 사람의 성질은 본래는 같으나 자라난 환경과 교육에 따라 선악(善惡)의 차가 생김을 비유해 이르는 말.
④ **오월동주(吳越同舟)** : 吳 성 오/越 녀를 월/同 한가지 동/舟 배 주) 오(吳)나라 사람과 월(越)나라 사람이 한 배에 타고 있는 뜻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원수라도 협력하게 된다, 전혀 뜻이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됨.

[기출] 다음 <보기>에서 말하는 바를 나타낸 표현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년 순경 1차]

<보기>

현대 사회에서 경찰 조직은 협동과 협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경찰서와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 간 업무의 협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민생 안정을 위해 일선 경찰들이 협동하고 협력할 때 치안 유지와 질서 안정의 효력을 견지할 수 있다.

- ① 同心協力 ② 一人不過二人智
③ 十匙一飯 ④ 近墨者黑

답 ④ 한자성어

<보기> 글의 중심 문장은 첫 문장이며, 핵심은 '협동과 협력'이다. ①, ②, ③은 모두 협동과 관련되나 ④의 '근묵자흑(近墨者黑)'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에 물들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 ① **동심협력(同心協力)** : 同 한가지 동/心 마음 심/協 화합할 협/力 힘 력)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도움.
② **일인불과이인지(一人不過二人智)** : 一 한 일/人 사람 인/不 아닐 불/過 지 날 과/二 두 이/人 사람 인/智 지혜 지) 혼자서는 두 사람의 지혜를 넘지 못한다. 여럿이 힘을 합쳐 협력하라는 뜻. '백집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여럿이 힘을 합하는 것만은 못하니 협동하고 협력하라는 가르침이다. 위의 글을 직역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서는 두 사람의 지혜를 넘지[過] 못한다'이다. '불과(不過)'는 어느 정도에 이를지 못했을 때 쓴다. '불과(不過)'의 반대는 '과다(過多)'이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及] 않는 것은 '불과불급(不過不及)'이다. '一人之能過千人之能'(한 사람의 능력이 천 사람의 능력을 넘는다)이라는 말도 있다. 이런 일당천(一當千)의 사람을 '과인(過人)'이라고 한다. 예로부터 태교(胎敎)를 잘 해서 나온 아이는 '과인(過人)'이 된다고 한다.
③ **십시일반(十匙一飯)** : 十 열 십/匙 숟가락 시/一 한 일/飯 밥 반) 열 사람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5년 6월 27일 지방직 9급

2015. 06 . 2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이 한 손가락씩 밥을 보태면 한 사람이 먹을 만한 양식이 된다는 뜻으로, 여럿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쯤은 도와주기 쉽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근묵자흑(近墨者黑) : 近 가까울 근/墨 먹 묵/者 농 자/黑 검은 흑)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을 가까이하면 그 버릇에 물들기 쉽다는 말. [속]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라

3.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리포트 자료를 종류별로 (㉠)해 두어라.
- 재활용할 쓰레기를 제대로 (㉡)해야 한다.
- 그는 언제나 옳고 그른 일을 정확하게 (㉢)할 줄 안다.

㉠ ㉡ ㉢

① 分類 分離 區分

㉠ ㉡ ㉢

② 分類 區分 分離

③ 分離 區分 分類

④ 分離 分類 區分

답 ①

㉠은 종류별로 나누는 것이므로 '분류', ㉡은 재활용 쓰레기는 다른 것과 나누는 것이므로 '분리', ㉢은 옳은 일과 그른 일을 나누는 것이므로 '구분'이 적절하다.

• **분류(分類)** : 分 나눌 분/類 무리 류) 종류에 따라서 가름. '나눔'으로 순화.

• **분리(分離)** : 分 나눌 분/離 떠날 리) 서로 나뉘어 떨어짐.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상] 결합(結合), 합체(合體)

• **구분(區分)** : 區 구분할 구/分 나눌 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눔.

4. 밑줄 친 단어의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어쩌면 저렇게 숫저울까?
- 숫접다: 순박하고 진실하다.
- ② 그녀는 그가 떠날까 저어하였다.
- 저어하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다.
- ③ 나는 곰살궂게 이모의 팔다리를 주물렀다.
- 곰살궂다: 일이나 행동이 적당하다.
- ④ 아이들이 놀이방에서 새살거리다.
- 새살거리다: 썰썰 웃으면서 재미있게 자꾸 지껄이다.

답 ③

③의 '곰살궂다'는 '성질이나 태도가 다정하고 씩씩하다', '꼼꼼하고 자세하다'는 뜻이다.

① **숫접다**: 사람이 순박하고 진실하여 수줍어하는 면이 있다.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 원칙에 따라 '숫접다'로 적는다.

예 그녀는 숫저운 자세로 우중의 말을 듣고 있었다.

② **저어하다**: 사람이 어떤 일 따위를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다.

예 그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저어하여 내게 비밀을 지켜 달라고 신신당

부하였다.

[동음이의어] 저어하다(齟齬--): ㉠ 익숙하지 아니하여 서름서름하다.

㉡ 뜻이 맞지 아니하여 조금 서먹하다 [동] 서어하다.

③ **곰살궂다**: ㉠성질이나 태도가 다정하고 씩씩하다. ㉡ 꼼꼼하고 자세하다. [유] 곰살갑다, 곰살맞다, 곰살스럽다

예 어린 녀석이 어른들 대하는 태도가 제법 곰살궂었다.

④ **새살거리다**: 썰썰 웃으면서 재미있게 자꾸 지껄이다. [유] 새살대다, 새살새살하다

예 손녀딸이 새살거리는 소리에 절로 웃음이 나온다.

[기출] 다음 제시된 단어 중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서울시 9급]

- ① 여봐란듯이 : 우쭐대고 자랑하듯이
- ② 가뭇없이 : 보이던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 찾을 곳이 감감하게
- ③ 오롯이 :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
- ④ 대수로이 : 그다지 훌륭하지 아니하게

답 ④ [2015년 서울시 9급]

④의 '대수로이'는 '중요하게 여길 만한 정도로'의 뜻을 지닌 부사이다. '그다지 훌륭하지 아니하게'의 뜻을 지닌 부사는 '하찮아'이다.

① **여봐란듯이** : ㉠ 우쭐대고 자랑하듯이, ㉡ 남들 앞에서 자랑스럽거나 당당하게.

예 우리도 이제부터는 여봐란듯이 살아 보자.

② **가뭇없이** : ㉠ 보이던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 찾을 곳이 감감하게 ㉡ 눈에 띄지 않게 감쪽같이.

예 그토록 아끼던 반지가 가뭇없이 구멍에 떨어졌다.

③ **오롯이** :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

예 이 책에는 옛 성인들의 가르침이 오롯이 담겨 있다.

[동음이의어] 오롯이 : 고요하고 쓸쓸하게.

예 새벽하늘에 작은 별 하나가 오롯이 빛나고 있다.

④ **대수로이** : 주로 부정문이나 반어 의문문에 쓰여 중요하게 여길 만한 정도로. 대수로이(×)

예 한두 개 굵은 것쯤은 대수로이 생각하지 않았다.

[참고] 하찮아 : ㉠ 그다지 훌륭하지 아니하게. ㉡ 대수롭지 아니하게.

5. 다음과 같은 뜻의 속담은?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진다는 것을 말한다.

- 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 ② 언 발에 오줌 누기
- ③ 여름 불도 쪼다 나면 서운하다.
- ④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답 ②

제시문의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진다'는 의미의 속담은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5년 6월 27일 지방직 9급

2015. 06 . 2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②의 '언 발에 오줌 누기'이다.

- 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 손해를 크게 볼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마땅치 아니한 것을 없애려고 그저 덤비기만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같은 속담] 빈대 미워 집에 불 놓는다.
- ② **언 발에 오줌 누기** : 동족방뇨(凍足放尿), 언 발을 녹이려고 오줌을 누어 봤자 효력이 별로 없다는 뜻으로,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여름 불도 쪼다 나면 서운하다** : 오랫동안 해 오던 일을 그만두기는 썩 어렵다는 말. [같은 속담] 오뉴월 것불도 쪼다 나면 섭섭하다.
- ④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 밀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독이 채워질 수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힘이나 밀천을 들여도 보람 없이 헛된 일이 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잘못된 것은?

- 나는 그 일을 시답지 않게 생각한다.
- 그에게는 다섯 살배기 딸이 있다.
- 밖에 있던 그가 금세 뛰어왔다.
- 건물이 부썽진 지 오래되었다.

㉠ ④

‘부수다’의 피동표현은 ‘부수+어지다’의 형태가 아닌 ‘부서지다’이다. 따라서 ‘부서진’이 바른 표현이다. 동사 뒤에 ‘-어지다’를 붙여 남의 힘에 의하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입음을 나타내는 단어를 형성하기도 하므로, ‘부수다’의 어간 ‘부수-’ 뒤에 ‘-어지다’를 붙여 피동 표현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원적으로 이미 ‘부서지다’가 ‘부수다’에 대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존재했고, 지금도 그렇게 쓰이고 있으므로, ‘부썽지다’와 같은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다.

① **시답다** : 마음에 차거나 들어서 만족스럽거나 중요하게 여길 만하다. ‘시답지 않다’, ‘시답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인다. 시답다(X)

② **-배기**

㉡ ‘그 나이를 먹은 아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두 살배기, 다섯 살배기.

㉢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들어 있거나 차 있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나이배기.

㉤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런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공짜배기, 대짜배기, 진짜배기

③ **금세** : 지금 바로. ‘금시에’가 줄어든 말로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된다.

[참고] ‘사이’는 자주 ‘새’로 줄여 쓴다. ‘그사이’는 ‘그새’, ‘고사이’는 ‘고새’, ‘이사이’는 ‘이새’, ‘요사이’는 ‘요새’가 된다. 그러나 ‘금새’에서 ‘새’는 ‘사이’의 준말이 아니다. 시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금새’는 물건의 값을 뜻한다. 시간과 관계있는 말은 ‘금시(今時)’에다. 바로 지금을 뜻하며 줄여서 ‘금세’로 주로 쓴다.

④ **부썽진 → 부서진**

부수다: ㉠ 단단한 물체를 여러 조각이 나게 두드려 깨뜨리다. ㉡ 만들어진 물건을 두드리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들다.

이를 경기와 전북 방언에서 ‘부시다’로 쓰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참고] ‘돌을 부수다, 문을 부수다.’ 단단한 물체를 여러 조각이 나게 깨뜨린다는 뜻을 가진 ‘부수다’의 옛 형태는 ‘브스다’였다. 이 말의 피동 형태는 ‘브서지다(브스+어지다)’가 된다. 현재 ‘부수다’의 피동 표현으로 ‘부서지다’가 쓰이는 이유다. 이미 ‘부서(브서)지다’가 ‘부수(브스)다’에 대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존재했던 것이다.

7. 묶음표의 쓰임이 잘못된 것은?

- 나는 3.1 운동(1919) 당시 중학생이었다.
- 그녀의 나이(年歲)가 60세일 때 그 일이 터졌다.
- 젊음[희망(希望)의 다른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 국가의 성립 요소 { 영토, 국민, 주권 }

㉠ ② 문장부호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 대괄호를 쓴다. 따라서 ‘나이[年歲]’가 바른 표현이다.

①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낱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마침표를 쓴다. 이때는 마침표 대신 가운뎃점을 쓸 수 있다.

예 3.1 운동 / 3·1 운동

• 주석이나 연도 등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소괄호를 쓴다.

예 3.1 운동(1919)

②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 대괄호를 쓴다.

예 나이[年歲], 낱말[單語], 손발[手足]

③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의 괄호로 대괄호를 쓴다. 예 젊음[희망(希望)의 다른 이름]

④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 중괄호를 쓴다.

[기출] 다음의 밑줄 친 문장 부호 중에서 그 쓰임이 가장 적절한 것은? [2015년 순경 1차]

- 나는 그의 말의 참 : 거짓을 판단할 수 없었다.
- 순영은 커피[coffee] 한 잔을 주문했다.
- 너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 현수는 글에 적절한 낱말[單語]을 사전에서 찾고 있다.

㉠ ③ 문장부호

③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는 맨 끝의 물음에만 물음표(?)를 쓰고, 각 물음이 독립적일 때는 각 물음의 뒤에 물음표(?)를 쓴다.

예 너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예 너는 여기에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왔니?

①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는 가운뎃점을 쓴다.

→ 나는 그의 말의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었다.

다만, 이때는 가운뎃점을 쓰지 않거나 쉼표를 쓸 수도 있다.

→ 나는 그의 말의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었다.

→ 나는 그의 말의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었다.

②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는 소괄호(())를 쓴다.

→ 커피(coffee) 한 잔을 주문했다.

④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 대괄호([])를 쓴다.

→ 현수는 글에 적절한 낱말[單語]을 사전에서 찾고 있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5년 6월 27일 지방직 9급

2015. 06 . 2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몽타주는 두 개 이상의 상관성이 없는 장면을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다. 에이젠슈타인은 몽타주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상형문자가 합해져서 회의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빌려 왔다. 그는 두 개의 묘사 가능한 것을 병치하여 시각적으로 묘사 불가능한 것을 재현하려 했다. 가령 사람의 ‘눈’과 ‘물’의 이미지를 충돌시켜 ‘슬픔’의 의미를 드러내며, ‘문’ 그림 옆에 ‘귀’ 그림을 놓아 ‘도청’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식이다. 의미에 있어서 단일하고, 내용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묘사적인 장면을 연결시켜 지적인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이 그가 구현하려 했던 몽타주의 개념이다.

- 몽타주는 상형문자의 형성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법이다.
- 몽타주는 묘사 가능한 대상을 병치하여 묘사 불가능한 것을 재현한다.
- ‘눈’과 ‘물’의 이미지가 한 장면에 배치되어 ‘슬픔’이 표현된다.
- ‘문’과 ‘귀’의 이미지가 결합하여 ‘도청’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①

에이젠슈타인은 상형문자가 합해져서 회의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빌려 왔다. 따라서 ①의 ‘상형문자의 형성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법’이라는 설명은 바르지 않다. ②, ③, ④의 내용은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형식의 ‘소비에트 몽타주’

제시된 글은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한 고전적인 편집 기법에 반기를 들고 편집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고자 했던 소비에트 몽타주의 기법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글쓴이는 몽타주의 주요 개념을 설명하면서 대표적인 몽타주 이론가이자 영화감독인 에이젠슈타인의 이론과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노동 시장은 생산물 시장과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생산물 시장이나 타 생산요소 시장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간이 상품의 일부라는 점이다. 생산물 시장에서 일반 재화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완전한 이전이 가능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대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오로지 재화 그 자체의 가격과 품질을 고려하여 수요·공급 의사를 결정한다. 그러나 노동 시장에서 노동이라는 상품은 공급자 자신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의 수요자와 공급자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것 이상의 인간적 관계를 맺게 되고, 수요·공급에 있어서 봉급, 부가 급여, 직업의 사회적 명예, 근무 환경, 직장의 평판 등 가격 이외의 비경제적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노동 시장은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공급이 유연성 있게 변화하지 않는 동시에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해도 가격의 조절 기능이 즉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 여러 이론을 토대로 노동 시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 여러 사례를 근거로 삼아 노동 시장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 대비의 방식을 사용하여 노동 시장이 가지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노동 시장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분석하여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③

제시문은 생산물 시장이나 타 생산요소 시장과 대비하여 노동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서 ‘노동 시장은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공급이 유연성 있게 변화하지 않는 동시에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해도 가격의 조절 기능이 즉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 노동 시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 노동 시장에 대한 통념을 비판한 글이 아니다.
- 노동 시장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분석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주장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1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장은 혼자서 빙긋 웃었다. 감독조를 짐짓 3공사장으로 보내길 잘했다고 그는 생각했다. 사실은 그들이 없으면 인부들을 통솔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원하는 대로 모두 수걱수걱 들어 주고 나면 길 잘못 들인 강아지 새끼처럼 또 무엇을 달라고 보챌지 몰라 불안할수록, 더욱 감독조는 필요했다. 그래서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 보냈다가 인부들과는 낯선 다른 패들로 교대시킬 뿐이었다. 현재 노임도 올렸고 시간 노동제도 실시하고 있는 척할 수밖에 없지만, 우선 내일의 행사를 위해 숨 좀 돌려보자는 게 그의 속셈이었다. 그 다음엔 주동자들을 먼저 아무도 모르게 경찰에 데려다가 책임을 물어 따끔하게 본때를 보인 후, 여비나 두둑이 주어 구슬리며 댄 지방으로 쫓아 보낼 작정이었다. 그의 손에는 쟁의에 참가했던 인부들의 명단이 저절로 들어와 있는 셈이었다. 그들 불평분자의 절반쯤은 3공사장 인부들과 교대시키고, 나머지는 남겨 두되 각 함바에 뽕뽕이 흩어지게 배당할 거였다. 점차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둘씩 해고해 나갈 것이었다. 차츰차츰 작업량을 늘리고 작업장을 줄여 가면 남는 인부가 많게 될 테니 열흘도 못 가서 감원할 구실이 생길 거였다. 따라서 인상되었던 노임을 차츰 낮추며 도급을 계속시키면서 인부들이 모르는 사이에 전과 같이 나가면 어항에 물 갈아 넣는 것처럼 인부들은 모두 새 사람으로 바뀔 것이었다. 소장은 이 모든 일들을 열흘 안으로 해치우고 원상 복구를 해 놓을 자신이 있었다.

－ 황석영, 『객지』 중에서－

- 소장은 내일의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려고 한다.
- 소장은 쟁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 소장은 쟁의의 주동자들을 해고할 생각을 갖고 있다.
- 소장은 감독조를 해체하여 상황을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5년 6월 27일 지방직 9급

2015. 06 . 2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답 ④

소장은 감독조를 잠잠해질 때까지 3공사장으로 보냈다가 다른 패들로 교대시킨다고 했으므로 '해체'를 한 것이 아니다.

※황석영, 「객지」

- 갈래 : 중편 소설, 노동 소설
 - 성격 : 사실적, 현실 비판적
 - 시점 :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 배경
 - 시간 - 1970년대
 - 공간 - 서해안 간척지 공사 현장
 - 주제 : 떠돌이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고발과 저항 의지
 - 해제 : 「객지」는 산업화 시대 떠돌이 노동자들의 비인간적인 노동 현실을 그린 작품이다. 작가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을 사실적이고 긴박한 문체로 묘사함으로써, 산업화에 따른 현실적 모순과 그에 대항하는 민중의 저항 의지를 생생하게 드러내었다. 또한 노동자의 열악한 생활을 절실하게 파헤치는 동시에, 인물들의 내면심리를 세밀하게 표현하여 개인의 행위가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던 1970년대 노동자의 노동과 투쟁의 과정을 그렸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노동 소설의 문을 연 작품으로 꼽힌다.

[유제]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노동자들에 대한 '소장'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사태 처리에 대한 '소장'의 강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
- 쟁의에 대처할 '소장'의 구상을 순차적으로 밝히고 있다.
- 권력보다 명예를 중시하는 '소장'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
- '소장'이 효과적이라고 믿는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 방식이 제시되어 있다.

답 ④ 작품의 내용 파악

소장은 노동자를 관리하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소장이 권력보다 명예를 중시한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다.

- 소장은 노동자들을 어항의 '물'처럼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소장은 자신이 쟁의를 완벽히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 소장은 일단 쟁의를 와해시킨 뒤 쟁의에 참여한 이들을 쫓아내려 한다.
- 소장은 지금까지 감독조를 활용하여 노동자들을 통제해 왔으며, 그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11. 밑줄 친 용언의 활용이 잘못된 것은?

- 그는 허구헌 날 술만 마신다.
- 네가 시험에 합격했으니 동네 어른들과 잔치라도 벌어야겠구나.
- 무슨 말을 해도 관찮으니 내게 서슴지 말고 말해 보아라.
- 담당자의 서투른 일 처리 때문에 창구에서 큰 혼란이 있었다.

답 ①

기본형이 '허구하다'가 아닌 '허구하다'이다. '허구하+ㄴ(관형사형 어미)'의 형태로 '허구한'이 바른 표현이다.

① 허구헌(×) → 허구한(○)

'날,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다'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로서, 기본형이 '허구하다'이다. 따라서 '허구한' 형태로 쓰인다.

② '벌이다'와 '벌리다'

'벌리다'에는 '사이를 넓히거나 연다'는 뜻이고 '벌이다'는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는 뜻이다. 특히 '벌이다'를 써야 할 자리에 '벌리다'를 잘못 쓰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잔치를 벌리다', '논쟁을 벌리다'가 대표적인 예이다. '잔치를 벌이다', '논쟁을 벌이다'가 맞는 표현이다.

(1) 벌리다

- ㄱ. 줄 간격을 벌리다
- ㄴ. 가랑이를 벌리다
- ㄷ. 입을 벌리고 하품을 하다
- ㄹ.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다
- ㅁ. 자루를 벌리다

(2) 벌이다

- ㄱ. 잔치를 벌이다
- ㄴ. 장기판을 벌이다
- ㄷ. 좌판을 벌이다
- ㄹ. 친구와 논쟁을 벌이다
- ㅁ. 가게 주인과 입씨름을 벌이다

③ 서슴지(○) / 서슴치(×)

'서슴다'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망설이다'의 뜻으로, 흔히 '서슴지' 꼴로 '않다', '말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쓰인다. '서슴지'는 '서슴다'의 어간 '서슴-' 뒤에 어미 '-지'가 붙은 형태이다.

④ 서투른(○), 서툰(○)

준말 '서툴다'와 본말 '서투르다'가 다 같이 널리 쓰이므로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다만, 준말은 모음 어미와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투르다/서툴다'의 어간에 어미 '-ㄴ'과 '-니'가 붙으면, '서투르다'는 '서투른/서투르니'로, '서툴다'는 '서툰/서투니'로 활용한다.

12.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다.
-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는 함께 살기 어렵다.
- 새해에는 으레 새로운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 몸이 아픈 사람은 교실에 남아 있었다.

답 ①

형용사에는 현재의 사실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ㄴ다/는다'가 붙지 않는다. 형용사는 현재형이 기본형과 같다. '-ㄴ다/는다'는 동사에 붙는다. ①의 '굳다'는 '굳는다'로 활용이 가능한 동사이다. ②, ③, ④는 형용사이다.

① 동사의 '굳다'와 형용사의 '굳다'를 구별해야 한다.

1) 굳다 : 동사로 쓰인 경우

- ㉠ 무른 물질이 단단하게 되다.
- 예 기름이 굳다. 시멘트가 굳다
- ㉡ 근육이나 뼈마디가 뻣뻣하게 되다.
- 예 허리가 굳다
- ㉢ 표정이나 태도 따위가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하여지다.
- 예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 꾸지람을 듣자 그의 얼굴은 곧 굳었다.
- ㉤ 몸에 배어 버릇이 되다.
- 예 한번 말버릇이 굳어 버리면 여간해서 고치기 어렵다.
- ㉥ 돈이나 쌀 따위가 헤프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으로 계속 남게 되다.
- 예 책을 친구가 빌려 주어서 책 살 돈이 굳었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5년 6월 27일 지방직 9급

2015. 06 . 2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2) 곧다 : 형용사로 쓰인 경우

㉠ 누르는 자국이 나지 아니할 만큼 단단하다.

예) 굳은 땅과 진 땅.

㉡ 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할 만큼 힘이 나 뜻이 강하다.

예) 굳은 결심. 굳은 약속

㉢ 재물을 아끼고 지키는 성질이 있다.

예) 그는 사람됨이 굳고 인색해서 남에게 함부로 돈을 빌려 주는 법이 없다.

㉡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는 뜻의 ‘다르다’는 형용사이다.

[참고] ‘당장 문제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의 뜻인 ‘다른’은 관형사이다.

㉢ ‘새롭다’는 “지금까지 있는 적이 없다.” 또는 “전과 달리 생생하고 산뜻하게 느껴지는 맛이 있다.”라는 뜻의 형용사이다.

㉣ ‘아프다, 저리다, 슬프다’ 등은 형용사다.

[기출] 밑줄 친 부분의 활용이 옳지 않은 것은? [국가직 9급]

- ① 다시 생각해 보니 내 생각과 달리 네 말이 맞는다.
- ② 유달리 가운 그해 봄에는 황사도 많이 왔다고 한다.
- ③ 나는 저린 어깨 때문에 가방을 제대로 들 수가 없다.
- ④ 그 모임의 분위기에 걸맞는 옷 좀 골라 주세요.

답 ④ [2010년 국가직 9급]

형용사 평서형의 ‘-는(ㄴ)다’, **청유형**, **명령형**, 그리고 연결 어미 중, ‘-(으)러, -고서’ 등이 연결될 수 없다. ‘걸맞다’는 형용사이므로, ‘걸맞는’으로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걸맞은’으로 표현해야 한다.

① ‘맞다’는 동사이므로, ‘맞는다’로 활용한다.

② 기본형은 ‘가물다’. 용언의 ㄹ받침은 ‘-ㄴ, ㅂ, 시, 오’ 등에서 탈락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가물+ㄴ = 가운’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

③ 기본형은 ‘저리다’. ‘저리(어간)+ㄴ(어미)’의 형태이므로 올바른 활용이다.

※어미 결합의 제약 : 동사는 모든 어말 어미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으나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는 평서형의 ‘-는(ㄴ)다’, 청유형, 명령형, 그리고 연결 어미 중, ‘-(으)러, -고서’ 등이 연결될 수 없다.

13. 다음 중 고친 문장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창작 활동과 전시회를 열었다.
→ 그는 창작 활동을 하고 전시회를 열었다.
- ② 그는 천재로 불려졌다.
→ 그는 천재로 불렸다.
- ③ 그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의 손자이다.
→ 그는 마음씨가 좋은 할머니의 손자이다.
- ④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게 물을 주었다.
→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 물을 주었다.

답 ③

③의 두 문장은 모두 관형절 ‘마음씨(가) 좋은’이 수식하는 대상이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손자(그)’가 될 수도 있는 중의적 표현이다.

① 목적어 ‘창작 활동’과 ‘전시회’의 서술어를 각각 구별하였다.

② ‘불려지다’는 ‘부르+이+어지+다’의 형태로, 이중피동이므로 바르지 않다. ‘부르다’의 피동형은 ‘불리다’이다.

③ 주격조사 ‘-가’와 관계없이 두 문장 모두 중의적이다. 첨표를 적절하게 표시하거

나 문장성분의 어순을 바꾸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 그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의 손자이다.

→ 그의 할머니는 마음씨가 좋으시다.

④ 부정명사에는 부사격조사 ‘-에’, 유정명사에는 ‘-에게’가 결합한다.

[기출] 다음 중 어법에 맞게 고친 문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년 순경 2차]

- ① 인간은 운명에 복종할 수도 있고, 지배할 수도 있다.
→ 인간은 운명에 복종도 하고 지배도 한다.
- ② 이 차는 사람이나 짐을 싣고 다닌다.
→ 이 차는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고 다닌다.
- ③ 나는 철수에 선물을 주었다.
→ 나는 철수에게 선물을 주었다.
- ④ 나는 결코 이 일을 해야 해.
→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해.

답 ① [2014년 순경 2차]

서술어 ‘복종하다’는 부사어를, ‘지배하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인간은 운명에 복종도 하고, 운명을 지배할 수도 있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② ‘사람이나’와 ‘짐을’이 ‘싣고’의 목적어로 되어 있는데, ‘사람’은 ‘태우는’ 대상이지 ‘싣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이 차는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고 다닌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③ 사람과 같은 유정명사에 쓸 수 있는 조사는 ‘에게’가 되고, 물건과 같은 무정명사에 쓸 수 있는 조사는 ‘에’가 된다.

④ ‘결코’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의 의미를 지니는 부사이다. 주로 ‘아니다, 없다, 못하다’ 등의 부정 서술어와 호응한다. ‘틀림없이’라는 뜻을 지닌 부사 ‘반드시’로 표현해야 한다.

14. 밑줄 친 부분을 고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사업자는 절전형 기기 보급 제도가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여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 ① 사업자는 → 사업자의
- ② 에너지를 → 에너지의
- ③ 줄임으로써 → 줄임으로서
- ④ 발전과 → 발전보다

답 ②

이어진 문장에서 ‘이용을(목적어) 증진하여(서술어)’가 있으므로 관형어의 형태가 바른 표현이다.

① 문장의 서술어 ‘동의한다’의 주어이므로 ‘사업자는’이 바른 표현이다.

③ ‘로써’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며 ‘로써’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거나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제시된 문장에서는 환경피해를 줄이는 방법의 의미이므로 ‘-로써’가 바른 표현이다.

④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구조이다.

→ 건전한(관형어) 발전에(부사어) 이바지한다(서술어)

→ 국민 복지의(관형어) 증진에(부사어) 이바지한다(서술어)

부사어 ‘발전’과 ‘증진’은 동일한 서술어를 취하므로 대등접속조가 ‘-와/과’로 연결하는 것이 바르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5년 6월 27일 지방직 9급

2015. 06 . 2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5. 다음 중 올바른 우리말 표현은?

- ① (초청장 문안에서) 귀하를 이번 행사에 꼭 모시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전화 통화에서) 과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
- ③ (직원이 고객에게) 주문하신 상품은 현재 품질이십니다.
- ④ (방송에 출연해서) 저희나라가 이번에 우승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덕택입니다.

답 ②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으면 “지금 안 계십니다.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라고 정중하고 친절하게 답하면 된다. 특히 직장에서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5분 후에 다시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등과 같이 다양하게 말할 수 있다.

- ① ‘많이 참석해’의 주어는 ‘귀하’이다. 특정인을 한정한 ‘귀하’와 부사어 ‘많이’의 호응이 맞지 않다.
- ② 전화를 바꾸어 줄 때에는 집에서나 직장에서 모두 “(네,) 잠시(잠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구(시)라고 전해드릴까요(여쭙까요)?”라고 할 수 있다.
- ③ 품질이십니다. → 품질입니다.
청자의 소유물이나 청자와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도 아닌 ‘상품’의 서술어에 ‘-시-’를 넣은 잘못된 존경 표현이다.
- ④ 저희나라 → 우리나라
‘저희’는 ‘우리’의 낮춤말로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낮추어 말할 때 쓰인다.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를 낮추어 말하는 것이다. 이는 겸손하게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쳐 생긴 잘못된 표현으로 ‘우리나라’라고 써야 한다. ‘우리’와 ‘나라’를 합친 말인 ‘우리나라’는 사전에 ‘우리 한민족이 세운 나라를 스스로 이르는 말’이라 풀이되어 있다. ‘우리’와 ‘나라’ 사이를 띄어 쓰지도 않는다.

[기출] 다음 대화에서 A가 범한 어법 사용의 오류와 가장 유사한 것은? [2014년 국가직 9급]

A : 여보세요.
B : 여보세요. 김 선생님 계신가요?
A : 지금 안 계시는데요.
B : 어디 멀리 가셨나요?
A : 예, 지금 수업 중이십니다.
B : 수업은 언제 끝나나요?
A : 글썄요, 수업 끝나고 학생들과 면담이 계시다고 하셨어요.
B : 아유, 그럼 통화하기가 어렵겠군요.

- ① 내일 서울역전 앞에서 만나자.
- ② 손님, 주문하신 햄버거 나오셨습니다.
- ③ 국장님, 과장님이 외부에 나갔습니다.
- ④ 선생님은 학교에 불일이 있으셔서 일찍 학교에 가셨습니다.

답 ② 언어예절 [2014년 국가직 9급]

<보기>의 ‘면담이 계시다’는 ‘계시다’가 ‘면담’을 높이게 되므로 바르지 않다. ‘계시다’는 직접 주체를 높이는 데에 써야 ‘하고, ’있으시다’는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데에 써야 한다. 높임법 사용의 오류이다. ‘면담이 있으시다’가 바른 표현이다. ②의 ‘햄버거가 나오셨습니다’도 햄버거를 높이는 표현이므로 바르지 않다. ‘햄버거가 나왔습니다.’가 바른 표현이다.

- ① ‘서울역전’의 ‘전(前)’과 ‘앞’이 중복된 잉여적 표현이다. ‘서울역 앞에서’ 또는 ‘서울역전에서’로 고쳐야 한다.
- ③ 직장에서는 압존법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모두 높임선어말어미 ‘-시-’를 넣어 말해야 한다. 따라서 청자의 직급에 관계없이 화자보다 주체의 직급이 높으



- 로 주체높임법을 해야 한다. ‘국장님, 과장님이 외부에 나가셨습니다.’가 바른 표현이다.
④ 주체를 간접 높인 것이므로 ‘불일이 있으시다’는 올바른 표현이다.

16.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정보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은 인간이 체험하는 감각이다. 돌이 단단하고 물이 부드럽다는 것은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감각이 체계적인 지식으로 발전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감각이 주관적이어서 사람과 시기에 따라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철학자들은 감각을 중시하지 않았지만, 존 로크와 같은 경험론자들은 감각의 기능을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감각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구체적인 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 ② 마음을 다하면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고,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면 천명을 알게 될 것이다.
- ③ 종 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종을 치면 소리가 난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 ④ 세계의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유 의식의 진보이다.

답 ③

제시된 글의 요지는 ‘감각이 체계적인 지식으로 발전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감각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구체적인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종 치는 것(시각적 감각)’을 보지 못하면 ‘종을 치면 소리가 난다(구체적인 정보)’는 것을 모르는 ③이 적절하다.

17. 다음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양반이라는 말은 선비 족속의 존칭이다.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있었는데, 그는 어질면서도 글 읽기를 좋아하였다. 군수가 새로 부임하면 반드시 그 집에 몸소 나아가서 경의를 표하였다. 그러나 그는 집안이 가난해서 해마다 관가에서 환곡을 빌려 먹다 보니 그 빚이 쌓여서 천 석에 이르렀다. 관찰사가 각 고을을 돌아다니다가 이곳의 환곡 출납을 검열하고는 매우 노하여, “어떤 놈의 양반이 군량을 이렇게 축내었느냐?”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명령을 내려 그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하였다. 군수는 마음속으로 그 양반이 가난해서 값을 길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두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 양반은 밤낮으로 훌쩍거리며 울었지만 별다른 대책도 생각해 낼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아내가 몰아 세우기를, “당신은 한평생 글 읽기를 좋아했지만 관가의 환곡을 갚는 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구려. 양반 양반 하더니 양반은 한 푼 가치도 못 되는구려.”라고 하였다.

－ 박지원, ‘양반전’ 중에서 －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5년 6월 27일 지방직 9급

2015. 06 . 2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① 양반은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② 군수는 양반에게 측은지심을 느끼고 있다.
- ③ 관찰사는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 ④ 아내는 남편에 대해 외경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답 ④

아내는 “양반은 한 톨 가치도 못 되는구려.”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이는 별다른 대책도 생각해 내지 못하고 밤낮으로 훌쩍거리며 우는 양반을 빈정거리면서 무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을 뜻하는 ‘외경(畏敬)’은 적절하지 않다.

① 양반은 별다른 대책도 생각해 내지 못하고 밤낮으로 훌쩍거리며 울고 있다.

② ‘측은지심(惻隱之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른다. 군수는 마음속으로 그 양반이 가난해서 값을 길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겼다.

③ 관찰사가 각 고을을 돌아다니며 환곡 출납을 검열하고, 환곡을 갚지 못한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한 것으로 보아 관찰사는 공평무사(公平無私 :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음)하게 일 처리를 하는 인물이다.

※박지원, ‘양반전’

- 1) 갈래 : 한문 소설, 단편 소설, 풍자 소설
- 2) 성격 : 풍자적, 비판적, 사실적
- 3)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4) 배경 : 조선 후기, 강원도 정선
- 5) 제재 : 양반 신분의 매매
- 6) 주제 : 양반들의 무능과 위선적인 태도, 허위의식 풍자
맹목적인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 비판
- 7) 특징
 - ① 몰락하는 양반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풍자함
 - ②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보여 줌
- 8) 출전 : 방경각외전
- 9) 해제 : ‘양반전’은 조선 후기 양반 사회를 신랄하게 풍자한 단편 소설로, 연암의 작가 의식을 잘 드러낸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연암은 양반 신분을 팔고 사는 과정이 드러난 이 작품을 통해, 무능력하게 무위도식(無爲徒食)하면서 평민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양반을 통렬하게 비판·풍자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양반의 특권 의식을 선망하여 신분 상승을 노리는 평민 계급에 대한 비판 의식도 드러내고 있다.
연암의 이러한 비판에는 양반 계층이 몰락하고 신분 질서가 흔들리던 당시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자 하는 투철한 실학 정신과, 양반의 참모습을 찾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도 담겨 있다.
- 10) ‘양반전’의 주된 풍자 내용과 비판 대상
연암이 ‘양반전’에서 풍자하고자 한 주된 대상은 양반으로, 이러한 풍자 의식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양반 매매 증서이다. 1차 매매 증서에는 양반이 지켜야 할 덕목과 의무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양반의 무위도식하는 비생산성과 위선적인 허례허식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2차 매매 증서에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나열하여 양반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양반의 수탈과 횡포를 풍자·비판하고 있다.
한편 이 작품에서 연암은 평민 부자에 대한 비판 의식도 드러내고 있다. 돈이면 양반도 살 수 있다는 부자의 배금주의 가치관을 보여 주면서 진정한 양반이 되려 하기보다는 특권 의식을 지향하는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유제]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허생과 허생 아내의 가치관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허생은 묵적골〔墨積洞〕에 살았다. 곧장 남산(南山) 밑에 달으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사립문이 열렸는데, 두어 칸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

하루는 그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科擧)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소.”

“그럼 장인바치 일이라도 못 하시나요?”

“장인바치 일은 본래 배우지 않은 걸 어떻게 하겠소?”

“그럼 장사는 못 하시나요?”

“장사는 밑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소?”

처는 왈칵 성을 내며 소리쳤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요? 장인바치 일도 못 한다, 장사도 못 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 하시나요?”

허생은 읽던 책을 덮어 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 글 읽기로 십 년을 기약했는데, 이제 칠년인걸…….” 하고 획 문밖으로 나가 버렸다.

- 박지원, ‘허생전’

- ① 아내의 비난에 집을 나가는 것으로 보아 허생은 무능한 양반층의 생활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 ② 과거를 보지 않고 글만 읽는 것을 비난하는 것으로 보아 허생의 아내는 학문을 임신양명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 ③ 당초 글 읽기로 십 년을 기약했다는 말로 미루어 보아 허생은 학문을 통해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
- ④ 글 읽는 선비보다는 장인바치나 장사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허생은 사대부의 허위적인 삶에 모순을 느끼고 있다.
- ⑤ 글 읽기에만 매진하는 남편을 위해 묵묵히 바느질품을 파는 것으로 보아 허생 아내는 유교의 가부장적 사회 현실에 순응하고 있다.

답 ② 허생은 학문을 인격 수양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으나, 비생산적인 글 읽기 대신 장인바치 일이나 장사를 하라는 말로 미루어 보아 허생의 아내는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실용적 사고방식의 소유자로 학문을 임신양명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심청은 시각이 급하니 어서 바빠 물에 들라.”

심청이 거동 보소. 두 손을 합장하고 일어나서 하느님 전에 비는 말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 전에 비나이다. 심청이 죽는 일은 추호라도 싫지 아니하되, 병든 아비 깊은 한을 생전에 풀려 하고 이 죽음을 당하오니 명천(明天)은 감동하사 어두운 아비 눈을 밝게 띄워 주옵소서.”

눈물지며 하는 말이,

“여러 선인네 평안히 가옵시고, 억십만큼 이운 남겨 이 물가를 지나거든 나의 혼백 불러내어 물밥이나 주시오.” 하며 안색을 변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5년 6월 27일 지방직 9급

2015. 06 . 2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치 않고 뱃전에 나서 보니 티 없이 푸른 물은 월러령 팔녕 뒤동 구리 굽이쳐서 물거품 북적찌데한데, 심청이 기가 막혀 뒤로 벌떡 주저앉아 뱃전을 다시 잡고 기절하여 엎딘 양은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 '심청가' 중에서 -

- ①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서술이 나타나 있다.
- ② 등장인물들의 발화를 통해 사건의 상황을 보여준다.
- ③ 죽음을 초월한 심청의 면모와 효심이 드러나 있다.
- ④ 대상을 나열하여 장면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답 ④

이 글에서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지고 있고, 선인들은 장사를 해서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인당수 용왕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며 고사를 지내고 있다. ④ 대상을 나열하는 장면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심청이 거동 보소',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서술자가 자신의 주관을 드러내고 있다.

②와 ③은 "심청이 죽는 일은 추호라도 싫지 아니하되, 병든 아버 깊은 한을 생전에 풀려 하고 이 죽음을 당하오니"에 사건의 상황과 죽음을 초월한 심청의 효심이 드러나 있다.

19. 다음 글의 내용과 시적 상황이 가장 유사한 것은?

이때는 추구월망간(秋九月望間)이라. 월색이 명랑하여 남창에 비치고, 공중에 외기러기 응응한 긴 소리로 짝을 찾아 날아가고, 동산의 송림 사이에 두견이 슬피 울어 불여귀를 화답하니, 무심한 사람도 마음이 상하거든 독수공방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송이야 오죽할까. 송이가 모든 심사를 저버리고 책상머리에 의지하여 잠깐 졸다가 기러기 소리에 놀라 눈을 뜨고 보니, 남창에 밝은 달 허리에 가득하고 쓸쓸한 낙엽송은 심회를 돕는지라, 잊었던 심사가 다시 가슴에 가득해지며 눈물이 무심히 떨어진다. 송이가 남창을 가만히 열고 달빛을 내다보며 위연탄식하는데,

“달아, 너는 내 심사를 알리라.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임을 만났더니, 달은 다시 보건마는 임을 어찌 보지 못하는고. 심양강의 탄금녀는 만고문장 백낙천을 달 아래 만날 적에, 설진심중무한사(說盡心中無限事)를 세세히 하였건마는, 나는 어찌 박명하여 명랑한 저 달 아래서 부득설진심중사(不得說盡心中事)하니 가련하지 아니할까. 사람은 없어 말하지 못하나, 차라리 심중사를 종이 위에나 그리리라.” 하고, 연상을 내어 먹을 흥썬 갈고 청황모 무심필을 등백 풀어 백능화주지를 책상에 펼쳐 놓고, 섬섬옥수로 붓대를 곱게 쥐고 탄식하면서 맥맥이 앓았다가, 고개를 돌려 벽공의 높은 달을 두세 번 우러러보더니, 서두에 '추풍감별곡(秋風感別曲)' 다섯 자를 쓰고, 상사가 생각 되고, 생각이 노래 되고, 노래가 글이 되어 붓끝을 따라오니, 붓대가 쉴 새 없이 쓴다.

- '채봉감별곡' 중에서 -

- ①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기어이 물을 건너갔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이제 임이여 어이할꼬.
- ② 가위로 싹둑싹둑 옷 마르노라
추운 밤 열 손가락 모두 굳었네
남 위해 시집갈 옷 항상 짓건만
해마다 이내 몸은 홀로 잔다네.
- ③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다운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꼬.
- ④ 비 개인 긴 언덕에 풀빛 짙은데
님 보내는 남포에는 서러운 노래 퍼지네
대동강 물은 언제나 마를까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더하니.

답 ③

제시된 부분은 송이(채봉)가 별당에 거처하면서 임(필성)을 날마다 그리워하고 있다. 어느 달 밝은 밤에 '추풍감별곡'을 지어서 부르는 장면이다. ③의 '황조가'에서도 꾀꼬리는 암수가 서로 다정히 노닐고 있는데 비해 유리왕은 사랑하는 이를 잃고 외로이 돌아오는 길이다. 왕은 다정한 한 쌍의 꾀꼬리를 보며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더욱 절실히 느낀다. 자신의 외로운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으므로 <보기>의 글과 상황이 가장 유사하다.

① 백수광부의 처,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고조선 때 백수광부가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자 그의 아내가 이를 한탄하면서 불렀다는 노래로, 악곡명을 따라 '공후인(箜篌引)'이라고도 한다. '사별한 임에 대한 정한(精悍)'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한'의 정서를 보여주는 작품의 원류에 해당한다.

문헌상으로는 가장 오래 된 서정시가이며, 유일하게 전해지는 고조선의 시로 국문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

② 허난설헌의 '빈녀음(貧女吟)'

'빈녀음'은 4수로 이루어진 연작시이다. 이 시는 남을 위해 옷을 짓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즉, 자신은 가난 때문에 혼인도 못하는 처지이면서도 생계를 위해 밤이 깊어도 베를 짜는 것을 멈출 수 없고, 추운 밤에 손끝이 시려도 남이 시집갈 때 입을 옷을 바느질해야 하는 여인의 처지를 보여 줌으로써 불평등한 사회의 모습의 드러내고 있다.

• 주제 : 불평등한 현실 비판, 가난 때문에 시집 못 가는 여인의 한

④ 정지상의 '송인(送人)'

이 작품은 고려 시대 한시의 대표작으로서 지금까지도 널리 애송되고 있는 이별가이다. 임을 보내는 정한이 담긴 칠언 절구의 한시로서 대동강 남쪽 나룻가의 풀빛 짙은 언덕을 배경으로 임을 떠나 보내는 애절한 마음을 자연에 대비시켰다. 특히 이 시는 강변의 푸른 언덕과 파란 강물의 아름다운 색조를 대비적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이별의 슬픔과 별리의 눈물을 강물의 비교하는 것도 인상적이다. 특히, 대조, 도치, 과장법에 이어 대동강변의 남포라는 지명은 이 시의 구체성과 함께 향토적인 정서를 환기시켜 준다. 민족의 보편적 정서를 절절하게 담은 이별시의 백미이다.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彩鳳感別曲)'

- 1) 갈래 : 애정 소설, 영정 소설
- 2) 성격 : 사실적, 비판적, 진취적
- 3) 체재 : 채봉과 장필성이 사랑을 이루어 가는 과정
- 4) 주제 : 권세에 굴하지 않는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5년 6월 27일 지방직 9급

2015. 06 . 2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5) 특징

① 근대적 여성관을 드러냄- 다른 고전 소설과는 달리 주인공 채봉이 주체적 의지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에서 근대적 여성관에 근접하고 있다.
② 조선 말기의 타락한 세태의 일면을 사실적으로 드러냄.- 돈을 주고 벼슬을 사는 풍조를 통해서 조선 후기 타락한 사회상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③ 사건의 상당 부분을 우연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고전 소설과 관성에서 탈피했고, 현실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의 전개와 함께 사실에 가까운 표현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근대 소설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는 소설이라 할 수 있다.

④ 시대적으로 상당히 진보된 모습을 보여 주는 연애 소설이다. 애정을 주제로 하는 고대 소설작품에 기생이 등장하지 않는 예는 없듯이 이 소설에서도 채봉이라는 본이름을 송이로 바꾼 기생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 소설이 연애 소설이면서도 다른 고대 소설과 다른 점은 약간 조선 적인 전통에서 탈피하여 아버지가 딸을 팔아서 까지 벼슬을 하려 한 속물적인 잔인성이다. 또 진보적이라는 것은 평양감사가 기생을 사들여 관원으로 채용한 것이라든지 또 몸소 주례가 되어 기생의 애인과 성혼시키는 것 같은 것을 두고서 하는 말이다.

6) 해제 : '채봉감별곡'은 남녀 간의 애정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애정 소설로, 사건의 상당 부분을 우연성에 의존한 여타 고전 소설과 달리 현실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의 전개, 사실에 가까운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작품은 '채봉'이라는 한 여성이 출세욕에 눈이 먼 부모 때문에 고초를 겪으면서도 끝내 사랑을 성취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특히 주인공 채봉이 주체적 의지에 따라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그 사랑을 성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적 여성관과 봉건적 세계에 대한 도전 정신을 드러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작품에서는 채봉이 아버지가 돈을 주고 관직을 사려는 행위가 드러나는데, 이를 통해 돈을 주고 벼슬을 사는 일이 성행하였던 조선 후기 타락한 세태의 일면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7) 전체 줄거리

평양에 사는 김 진사가 벼슬을 구하려고 서울에 간 사이 그의 딸 채봉이는 우연히 장필성이라는 가난한 선비를 만나 결혼을 약속한다. 김진사는 세도가인 허 판서를 만나 딸을 첩으로 주는 대신 과거 현감 자리를 받기로 약속한다. 그러나 평양의 재산을 처분하고 서울로 오는 길에, 딸은 도망가고 김 진사는 도둑을 만나 재산을 탈린다. 분노한 허 판서는 김 진사를 가두고 부인은 딸에게 찾아와 첩이 되어 아비를 구하자고 한다.

그러나 채봉은 오히려 몸을 팔아 그 값을 어머니에게 주고 자신은 '송이'라는 이름의 기생이 된다. 새로 온 평안 감사가 송이의 서화가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몸값을 지불하여 송이를 비서로 채용하고, 장필성도 송이를 보려고 이방으로 자원하여 감영으로 들어온다. 이러한 사연을 알게 된 평안 감사는 둘을 결혼시키게 되고, 허 판서는 파국을 맞이하여 채봉의 가족은 다시 행복해진다.

8) '채봉감별곡'의 배경이 된 당시 시대적 상황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 온 일종의 관행이었다. 특히 '채봉감별곡'의 배경이 되는 매관매직은 조선 말기에 들어서면서 크게 성행하였다. 주한 일본 외교관의 기록에 따르면 1866년의 시세로 감사는 2만~5만 냥, 부사는 2천~5천 냥, 군수와 현령은 1천~2천 냥에 거래되었다고 한다. 매관매직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먼저 돈을 내더라도 돈을 더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관직에 제수하는 바람에 부임하던 중간에 돌아오거나 부임한 달에 바로 해임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출] 다음 글에 드러난 시적화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2015년 법원직 9급]

무상(無狀)한 이 몸애 무슨지취(志趣) 이스리마는 두세 이렇
밧논를 다 무거 더더 두고,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물망
정,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랴스라. 다투(貧賤) 슬
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라. 인간(人間) 어니일이 명(命) 밧기 삼겨시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헝건마는 다투(生涯) 이러호되
설온 쫓은 업노왜라. 단사표음(簞食瓢飮)을 이도 족(足)히 너
기로라. 평생(平生) 혼쫓이 온포(溫飽)애는 업노왜라.

-박인로, 「누항사」

- ① 대초불 불근 골에 밤은 어이 뜻드르며
버 뵈 그르헤 게논어이 느리논고
술닉자 체장스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 ② 마음이 어린 후(後)니 헝논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萬重雲山)에 어느 님 오리마는
지논님 부논브람에 행어 권가 헝노라
- ③ 짚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안즈라
술불 허지 마라 어제 진 달 돌아온다
아희야 박주산채(薄酒山菜)일망정 업다 말고 내여라
- ④ 두류산(頭流山) 양단수(兩端水)를 네 듯고 이제 보니
도화(桃花) 뜬 붉은 물에 산영(山影)조춌잠것세라
아희야 무릉이 어디오 나논엔가 헝노라

㉠ ③

<보기> 글의 화자는 '빈이무원(貧而無怨,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음)'하면서 '안분지족(安分知足 :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함)'하는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③의 화자도 자연 속에서 소박한 풍류를 즐기며 안빈낙도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한호의 시조이다.

- ① 늦가을 농촌의 풍요로운 정취가 잘 드러난 황희의 농촌 한정가이다.
- ② 임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노래한 서경덕의 연정가이다.
- ④ 두류산 양단수의 절경에 대해 감탄한 조식의 시조이다.

※박인로, 「누항사」 현대어 해석

못 생긴 이 몸이 무슨 소원이 있으리오마는 두세 이랑 되는 밭과 논을 다 묵혀 던져 두고 있으면 죽이오 없으면 굴물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하노라. 나의 빈천을 싫게 여겨 손을 헤친다고 물러가며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 손을 친다고 나아오라? 인간 세상의 어느 일이 운명 밖에 생겼겠느냐? 가난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음이 어렵다고 하건마는 내 생활이 이러하되 서러운 뜻은 없노라. 한 사발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의 어려운 생활을 이것도 만족하게 여기노라. 평생의 한 뜻이 따듯이 입고 배불리 먹는 데는 없노라.(빈한한 처지지만 안빈낙도하고자 함)

20.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21세기 인류의 운명은 과학 기술 체계에 부여된 힘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 기술 공학에 의해 새로운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소박하고 성급한 희망과, 기술이 인간을 대신해서 역사의 주체로 등극하리라는 허무주의적인 전망이 서로 엇갈리는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 기술 공학적 질서의 본질과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모든 문화론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나) 그러나 모든 생산 체제가 중앙 집중적인 기업 문화를 포기할 수는 없으며, 기업 문화의 전환은 어디까지나 조직의 자기 보존, 생산의 효율성, 이윤의 극대화 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 무엇보다 기업 내부의 문화적 전환을 떠나서 환경이나 자원, 에너지 등의 범사회적인 문제들이 심각해질수록 사람들은 기술 공학의 마술적 힘에 매달리고, 그러한 위기들을 중앙 집중적 권력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관리하는 기술 사회에 대한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

(다) 기술적 질서는 자연은 물론 인간들의 삶의 방식에도 심층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관리 사회로의 이행이나 노동 과정의 자동화 등은 사회 공학적 기술이 정치 부문과 생산에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물론 기술 사회가 반드시 획일화된 관리 사회나 중앙 집권적 기업 문화로만 대표되지는 않는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컴퓨터 산업이나 초전도체 산업 등 고도 기술 사회의 일부 산업 분야는 중앙 집권적 기업 문화를 지양하고 자율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지니는 유연한 체제를 채택할 것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

(라) 생활 세계의 질서를 좌우하고 경제적 행위의 목적으로 자리잡은 기술은 더 이상 상품의 부가 가치를 높여 주는 생산 수단만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기술의 체계는 이제 여러 연관된 기술들과 기술적 지식들에 의해서 구성된 유기적인 앙상블로 기능하는 것이다. 기술은 그 자체의 질서와 역동성을 지니는 체계이며 유사 주체로서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나) - (라) - (다)
③ (가) - (다) - (나) - (라)
④ (가) - (라) - (다) - (나)

답 ③

(가) 화제 제시 - 기술 공학적 질서의 본질과 영향력

(다) 상세화 - 기술적 질서 변화 초래

중앙 집권적 기업 문화를 지양,

자율성과 개방성을 지닌 유연한 체제

(나) 역접 - (다)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연결 : 모든 생산 체제가 중앙 집중적인 기업 문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

(라) 결론 - 기술의 체계는 여러 연관된 기술들과 기술적 지식들에 의해서 구성된 유기적인 앙상블로 기능한다.

각 단락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21세기 인류의 운명은 과학 기술 체계에 부여된 힘이 어떻게 사용 되는가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 기술 공학적 질서의 본질과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모든 문화론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다) 기술적 질서는 자연은 물론 인간들의 삶의 방식에도 심층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고도 기술 사회의 일부 산업 분야는 중앙 집권적 기업 문화를 지양하고 자율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지니는 유연한 체제를 채택할 것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

(나) 그러나(역접) 모든 생산 체제가 중앙 집중적인 기업 문화를 포기할 수는 없으며, ~ 또(첨가) ~ 중앙 집중적 권력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관리하는 기술 사회에 대한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

(라) 기술의 체계는 이제 여러 연관된 기술들과 기술적 지식들에 의해서 구성된 유기적인 앙상블로 기능하는 것이다.

[기출] 다음 문장들을 미괄식 문단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문맥상 전개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2015년 서울시 9급]

- ㄱ. 숨 쉬고 마시는 공기와 물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된 경우가 많고, 자원의 고갈, 생태계의 파괴는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ㄴ. 현대인들은 과학 기술이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의 혜택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ㄷ. 자연 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갈등으로 인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도처에서 높아지고 있어서, 핵전쟁이라도 터진다면 인류의 생존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ㄹ. 이런 위기들이 현대 과학 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과학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ㅁ.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면 낙관적인 미래 전망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는 심각한 현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① ㄱ - ㄷ - ㅁ - ㄹ - ㄴ ② ㄴ - ㄹ - ㅁ - ㄱ - ㄷ
③ ㄴ - ㅁ - ㄱ - ㄷ - ㄹ ④ ㅁ - ㄹ - ㄱ - ㄷ - ㄴ

답 ③

미괄식 문단으로 구성하는 것이므로 주지 문장이 문단의 마지막에 위치한다. <보기>의 글은 과학 기술의 낙관적 전망에 대한 위험성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ㄹ' 문장이 마지막에 온다.

※출전 : 박정하, '과학 기술의 두 얼굴'

ㄴ : 도입 : 현대인들의 '과학 기술의 대한 낙관적 전망'

ㅁ : 반론 : (그러나:역접) 낙관적 미래 전망이 가벼움을 깨닫게 하는 심각한 현상

ㄱ : 구체적 사례 : 오염과 생태계 파괴

ㄷ : 구체적 사례 첨가 : 자연 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전쟁의 발발 가능성

ㄹ : 결론 : 이런 위기들이 '과학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의 위험성을 깨닫게 한다.